광양제철 4조7000억 대규모 프로젝트 시동

SNG공장·부생복합발전소 등 2014년까지 8개분야 신·증설

포스코는 2014년까지 4조7000억원을 투입,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대규모 신·증설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8년까지 세계 최대 철강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제철용강로에서 쇳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

포스코가 광양제철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2014년까지 SNG(합성천연가스)건설, 광양부생복합발전소, 6선석 부두건설, 4열연공장, 5소결공장, 포스하이메탈, 5코크스 공장, 포스화인, 3·4항로 준설 등 총 8개 분야에서 대규모 신·증설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착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연인원 270만명의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광양만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른 SNG 제조공장 설치가 주목을 끈다. 다음달 41만5000㎡ 슬러그처리장 부지에 착공해 2013년 준공될 이 공장은 매년 50만t의 합성천연가스를 생산해 연간 20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게 된다.

포스코는 포스코건설과 대우엔지니어링 등 포스코 계열사와 연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합성 기술과 석탄가스화 플랜트 사업을 국·내외에서 선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착공한 부생복합발전소는 제철 공정중 발생하는 부산물인 잉여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연 900억원 대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4950억원이 투입되는 부생발전소는 시간당 284MW의 발전용량을 생산해 한전에 전액 판매한다. 이 발전소는 광양제철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고효율의 복합발전으로 채택함으로써 연간 570억원의 원유 수입대체 효과와 8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이밖에 9월 준공 예정인 자동차용 부품제작에 사용될 PO(Pickling &Oiling)재 공장에는 연산 40만t 생산이 가능한 PPL(Push Pull Line)설비와 30만t의 처리능력을 갖춘 RCL(Recoling Line·되감기설비), 70만t 처리능력을 갖춘 CPL(Coil Packing) 시설 등이 600억원을 들여 신설된다.

포스코는 광양제철내 자동차 강재연구센터에서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로 미래형 차 강판인 '트윕강'을 개발해 본격 양산체제를 갖추면서 세계 자동차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준공한 광양제철내 후판공장은 연 500만t의 생산능력을 갖춰 총 700만t(포항제철 포함) 규모의 세계 최대 후판생산 철강회사로 도약을 예약해둔 상태다.

김준식 광양제철 소장은 "광양제철의 성장은 시민들의 꾸준한 성원과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랑받는 제철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20년까지 매출액 1000억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 3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을 최근 발표하는 등 동반성장 및 신뢰경영 의지를 실천해 가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웃음 주는 코스피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역대 최고인 2198.54로 마감한 코스피 종가를 보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8.63포인트 상승하며 IT주 강세에 힘입어 장중 한때 22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역사를 새로 썼다. /연합뉴스

"USB 쓰지마" 은행권 IT보안 강화

농협 전산사고 여파…예산·인력 등 확대
광주은행 "현 보안시스템 문제없다" 자신

금융권이 최근 농협 등의 잇따른 전산사고 여파로 IT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게 IT 관련 예산을 늘리거나, 아예 USB(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을 통제하는 곳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노트북을 통한 USB 접속으로 알려지자 전 행원에 USB 사용을 자제시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말기에서 USB로 쓰기 기능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일이 생기면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또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주요서버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인증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으로 알아내도 OTP 기기가 없다면 서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권고대로 IT 보안 예산과 인력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IT 보안예산과 보안인력이 전체 IT 예산 및 인력의 각 5%다.

광주은행도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보안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이번 농협 사태와 관련 이미 USB 사용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인터넷뱅킹 거래 확인을 위한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고 저장시 암호화하여 유출되더라도 해독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기준을 충족하는 접속 차단장치 구축과 매년 보안 전문기관을 통해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은 주요 서버에 대한 권한 통제를 위해 최고관리자 권한인 수퍼유저 권한은 단 2명(주무 1명, 보조 1명)만이 가지고 있으며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일체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또 모든 계정 사용자의 권한 관리 및 사후 증적 관리를 위해 계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주센터의 재해와 장애에 대비해 분당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센터가 가동불가능에 빠지면 3시간 이내에 영업점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뱅킹 거래가 가능토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보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재해복구 센터 시스템은 별도의 접근 통제를 통해 외부로부터 접근 자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농협 사태가 터지자 외부기관에 의뢰해 보안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실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198.54 (+28.63)
▼ 코스닥지수	529.58 (-2.67)
▲ 금리 (국고채 3년)	3.78% (+0.04)
▼ 원·달러 환율	1080.30원 (-1.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한통운-금호터미널 분리 매각하라"

광주시민단체협 촉구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낙평)는 21일 "대한통운 매각〈광주일보 4월18일자 8면〉과 관련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터미널을 분리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협은 이날 성명에서 "터미널은 지역의 공익시설임에도 개별 기업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매각 이익 극대화만을 꾀하지 말고 공익적 관단을 감안해 터미널을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협은 특히 "광주 광천동 금호터미널을 분리 매각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통구조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업 공동브랜드 '럭스코' 인증 잇따라

광주시가 지역 중소·벤처 광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개발한 광산업 공동브랜드 럭스코(LUXKO)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역기업인 (주)이노셈코리아 등 4개 업체 9개 제품이 럭스코 인증 제6호부터 14호까지 획득했다. 이로써 기존의 5개사 5개 제품과 함께 모두 9개사 14개 제품이 럭스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시험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13개 업체 18개 제품의 시험이 완료되는 올 상반기까지 약 22개사 30여 개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광주시가 개발한 럭스코는 광주 광산업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로, 국내는 물론 미국·일본·유럽 등에 상표등록을 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009년 기준 70억여원 수준이었던 럭스코 브랜드 제품 매출액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광주지방국세청은 21일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올 1분기 소득 지급내역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2%'가 가산 부과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로 사업주의 제출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 오늘 투자환경설명회

광주시는 21일 "22일 오전 3층 종회의실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기업인 등 40여 명을 초청해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시정시책과 투자유치 방향을 설명하고, 관내 주요산업단지와 문화·복지시설 등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지역 출신 수도권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단은 외지에 나가 새로운 기업을 일구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3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재경향우인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사랑 브랜드대상' 수상

광주은행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1 고객사랑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상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브랜드 대상에서 광주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히트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이 금융상품 부문 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상품은 2008년 3월 출시 돼 현재까지 총26만 5520건에 누적 판매금액 16조255억원으로 2011년 3월말 기준 총 6만6417좌에 2조7041억원을 실적을 올려 광주은행 정기예금 40.92%를 점유하고 있는 광주은행 대표 정기예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